

자동차 장수의 비결(3)

자동차를 잘 유지하고 고장을 방지하려면
매일 빠짐없는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호에는 봄과 여름철 자동차 관리요령에 대해서 알아본다.

1. 봄철의 자동차 관리

1) 엔진오일 점검

최근에는 엔진오일이 4계절용이라 구태여 교환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겨울용 엔진오일을 쓰고 있다면 계절에 맞는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2) 부동액 점검

4계절용 부동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만 채워놓고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

3) RPM 조정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운전자들은 정비소에서 엔진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겨울철 시동을 잘 걸리게 하기 위해 타코미터의 RPM을 900 가까이 올려놓았다면 700~750 정도로 낮추어 주는 것이 좋다.

4) 타이어의 점검

겨울 동안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했다면 봄철이 되어 일반 타이어로 바꿔 주어야 한다. 타이어의 안전을 위해서는 고른 마모가 필수적인데 타이어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좌우나 앞뒤 타이어를 대각선 위치로 교환해 주는 것이 좋다.

5) 배터리 점검

배터리는 자동차의 각 전기장치에 공급되는 전기를 축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항상 깨끗하게 하고 주위는 건조하게 해 주어야 한다. 특히 겨울철

에는 청소를 잘 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거나 부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터미널이 산화 부식으로 인해 하얀가루가 부착되어 있으면 브러쉬로 털어내고 그리스를 발라두면 좋다.

6) 공기청정기 점검

에어클리너는 시기에 관계 없이 봄철이 되면 엘리먼트를 새것으로 갈아 주어야 연료소모의 과다, 출력부족, 가스의 과다 방출 등을 방지할 수 있다.

7) 와이퍼 점검

와이퍼의 작동부분에 오일을 주입해 움직임이 부드럽게 되도록 조정을 하고 연결부분의 너트가 풀린 곳은 조여준다. 연결부분의 고무패킹이 끊어져 있거나 마멸되었을 때에는 새것으로 교환해 준다.

2. 여름철 자동차 관리

1) 여름철 에어컨 점검

에어컨은 압축된 냉매가스가 순환하면서 주위로부터 열을 빼앗는 원리에 의한 것인데 냉매가스가 부족하면 냉각능력이 떨어지고 압축기 등 다른 부품에 무리를 주므로 우선 냉매가스의 양이 적절한지 점검한다. 우선 엔진과 에어컨을 작동시킨 다음 엔진룸 속의 에어컨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는 투명창을 통해 나타나는 기포의 상태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량의 기포가 흐르면 정상이나 기포가 많을 경우 가스를 보충해 주어야 하고 에어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경우

증발기를 분리해 세척하여야 하며 에어컨은 겨울철에도 최소한 한달에 한번정도 작동을 시켜야만 냉매 가스 및 오일의 유효작용으로 인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2) 냉각수 점검

여름철에는 엔진이 과열될 수 있으므로 냉각수 순환과 팬의 회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운행중 만약 오버 히트 되었을 경우에는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보닛을 열고 엔진을 공회전 시키면서 냉각시킨다. 냉각계통의 이상을 체크하는 방법으로는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온도계이지가 어느 선까지 오는가 점검한 후 냉각팬이 작동하는지 살펴본다. 온도계이지가 C와 H중간에 위치하면 정상이다. 여름철의 자동차 이상은 엔진과열이 대부분인데 엔진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라디에이터부터 점검을 해야하고 먼저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침전물이 묻어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타이어 점검

젖은 빗길 운행을 대비해 타이어의 마모상태를 점검한다. 타이어가 마모되었을 경우 잘 미끄러지고 제동 거리가 길어지므로 사고의 위험이 높다. 노면과 맞닿는 부분인 트레드의 홈 깊이가 1.6mm 이상인지를 확인하고 알맞은 공기압을 유지시켜 준다. 공기압이 높아지는 것은 한낮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낮에 공기를 빼면 기온이 내려가는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압이 정상 이하로 낮아지는데 그러다 보면 접지면적이 넓어져 핸들조작이 무거워지고 마찰열의 증가로 타이어가 과열되는 위험에 따르게 되므로 공기를 빼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장마철에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평상시보다 10% 정도 높게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배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타이어의 트레드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트레드가 모두 닳은 타이어는 마른 노면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빗길에서는 그대로 미끌어지기 때문이다.

4) 실내환기

한 여름에는 차내 온도가 50℃를 넘기 마련이다. 에어컨이 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작동시켜 놓으면 차내 공기도 나쁘고 건강도 좋지 않다. 그렇다고 주행 중 앞 차창을 열어놓게 되면 앞좌석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강한 바람을 맞게되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실내환기를 위해 어느 자동차나 벤치레이션 시스템이 있게 마련이다. 대개 운전자들은 차 실내의 공기조절을 에어컨이나 히타에만 의존하려 할뿐 벤틸레이터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벤틸레이터의 풍향을 알맞게 조절하게 되면 차창의 김제거는 물론 실내환기가 원활하게 된다.

5) 바닷가를 다녀온 후의 세차

여름에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경우 자동차가 바닷바람을 맞거나 백사장 주차로 인해 염분이 자동차에 묻게되어 차체를 빨리 부식시키게 된다. 따라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는 세차를 깨끗이 해야 한다. ‘괜찮겠지!’ 하고 세차를 소홀히 하면 연말쯤에는 차체 전체에 산화 부식되어 조각조각 떨어지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항구 도시의 자동차들이 내륙지방의 자동차에 비해 차체가 쉬 부식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바닷가를 다녀온 자동차라면 걸부분은 물론 바닥부분인 새시까지 고압증기 세차를 해주는 것이 좋다. 